

#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해상사고' 증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 발생한 해상사고 역시 대부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 불감증과 관행적인 안전 매뉴얼 무시, 허술한 사고 대응 체계 등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는 이유로 꼽힌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는 급유선의 전방주의 의무 소홀과 낚시배의 과당 경쟁이 빚은 인재였다. 당시 해경의 부실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지난 12일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 충돌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화물선 선장은 진도 VTS로부터 어선을 피해 변경하라는 6차례 지시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신체널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4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목도에서 울릉도로 가던 여객선이 침수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해상사고는 2012년 1573건에서 2013년 10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상사고는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사망·실종) 역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0명 ▲2016년 118명 ▲2017년 14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 중 어선이 7222척으로 67.7%에 달했다. 이어 ▲기타(수상레저선박·유도선(13인 미만)·항만작업선 등) 1859척(17.5%) ▲화물선 115척(5.4%) ▲예인선 442척(4.1%) ▲유조선 308척(2.9%) ▲여객선 257척(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3년 1093건이었던 해양 선박 사고가 지난해 2582건까지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55건(11.9%↑)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어선

##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 '반복' '지난해 2582건 발생'...선원 안전 교육 '강화'

100명·비어선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 선박 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고, 낚시어선 사고도 총 68건 증가(223건)였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로 사망·실종자는 2016년 대비 22.9% 증가(118→145명)였고, 스틸라페이 지호 사고(실종 22명)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사망 15명)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 중 어선사고가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어선사고 중

에서도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2016년보다 6.5% 증가한 31.3%(557건)을 차지했다. 비어선에서도 기관상 사고가 35.0%(281건)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객선 사고는 2016년보다 34% 감소한 41건으로 집계됐다. 여객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2일부

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항해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비호출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선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척직 행정학 박사는 "선박 사고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거나 지켜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선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해상 안전사고는 사소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부터 발생한다"며 "선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횡단보도 손들고 안전하게 16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본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실'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가기 체험을 하고 있다

## 허위사실 공표한 군수 예비후보자 측근 등 2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모군수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측근 B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C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4월 'A씨가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

도자료를 지방 신문사 등 50개 언론사에 제공했고 같은날 'A씨가 부채제로인 글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지난 2017년부터 모신문에 A씨에 대한 유리한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했고 지난 2월과 같은 신문 오피니언란에 '모군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예비

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성 기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홍콩서 가족 살해 한국인 男 구치소서 자살

지난 1월 홍콩 여행 도중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 K(42)씨가 홍콩 현지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라이치콕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K씨는 이날 오전 7시에 구치소 내 독방에서 침대 시트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혼수상태였던 그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뒤 사망했다

그는 지난 1월 14일 홍콩 웨스트주룽의 리츠칼튼 호텔에 자신의 아내(42)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사업에 실패해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며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시 주룽콩 한국총영사관에 연락했다

홍콩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의 아내와 아들은 이미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홍콩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가족을 살해한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업 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16일 그는 첫 재판에서 7분 만에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 호주서 '살 파먹는 박테리아' 확산에 대비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flesh-eating bacteria)가 급속히 확산해 비상이 걸렸다

호주 ABC 방송은 16일 빅토리아 주에서만 지난 4년간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 수가 400%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의학계가 명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아직 찾지 못해 환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호주 감염병 전문가인 대니얼 오브라이언 교수는 16일자 호주의학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명 '부롤리 케양'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16년 182명의 환자가 보고됐지만, 2017년 1~11월 2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박테리아 감염은 흔히 팔이나 다리에 처음 나타나 궤양을 일으키며 시간이 갈수록 부위가 점점 더 커진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박테리아가 피부와 피하 조직을 먹어대어가고 근육 조직까지 파괴해 때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정말로 심각한 감염"이라고 말했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11세 소년은 무릎 부위의 조직이 파괴돼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6개월만에 낫기는 했지만 평생 운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아프리카 서부 또는 중부지역에서 발생해온 부롤리 케양은 최근들어 빅토리아주의 해안가 지역을 따라 벨리핀과 모닝턴 반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자들은 박테리아에 감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일본지시시설서 아동간 성폭력 '충격적'

일본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간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에(三重)현에 위치한 복수의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지난 2008~2016년 9년 동안 총 111건의 성폭력이 발생, 아동보호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에현에 의하면 부모의 학대 등의 이유로 현 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심대 청소년이 800명이 넘는데, 2008~2016년 사이 시설 내 아동 및 청소년 간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27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약 12건의 성폭력사건이 발생, 약 30명이 관련된 것이다

이 현에서 2008~2012년도 사이 5년간 발생한 51건의 성폭력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성폭력에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2~19세 나이의 아동 및 청소년 144명(남 88명, 여 56명)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는 물론 성관계도 있었다고 한다. 동성간의 성행위 및 3명 이상의 성관계도 적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IN  
신뢰한 정보,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스펙트럼, 자살치로, 영민 민력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심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